

LG화학, 영업이익 목표 하향조정!

2/4분기 경영실적 대폭악화 ... 정보전자소재 사업부문 그나마 약진

LG화학의 2/4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LG화학은 2003년 2/4분기 매출액이 1조43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77억원, 당기순이익은 581억원으로 각각 32%와 47.9% 감소했다. 경상이익도 전년동기대비 46.4% 감소한 853억원에 그쳤다.

그러나 LG화학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정보전자소재사업의 경영 성과가 대폭 개선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3% 증가한 1616억원, 영업이익은 98% 늘어난 249억원의 실적을 올렸다.

200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2조80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% 증가했고, 영업이익은 2545억원으로 12% 감소했다.

LG화학은 2003년 예상 경영실적과 관련해 매출액은 당초 5조5748억원에서 5조8093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반면, 영업이익은 6086억원에서 5178억원으로 하향조정기로 했다.

LG화학은 2/4분기 실적은 SARS로 인한 중국 수요 부진 및 자동차, 가전, 건설 등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이 겹쳐 수익성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정보전자소재사업 전망은 밝다며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7/25>